

달같이

年輪이 자라듯이

달이 자라는 고요한 밤에

달같이 외로운 사랑이

가슴하나 뻗근히

年輪처럼 피어나간다。

一四年、九月、

달같이

연륜이 자라듯이

달이 자라는 고요한 밤에

달같이 외로운 사랑이

가슴하나 뻗근히

연륜처럼 피어나간다.

1939. 9.